

## 신라국호 이표기와 한국한자음의 관계

권인한\*

### 1. 서론

이 글의 목표는 고유명사 이표기를 통한 고대 한국한자음의 연구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함이며, 이를 위하여 신라국호의 다양한 이표기들을 중심으로 권인한(1996)에 준하는 체제와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고찰의 대상을 신라국호의 이표기로 한정된 것은 이 예가 가락국호와 함께 고유명사 표기들 중 가장 많은 이표기를 보임으로써 한자음 연구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한국한자음의 층위 문제와 관련하여 唐五代 西北方音과의 영향관계를 점검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됨을 주목한 결과다. 신라국호 한 예에 대한 고찰에 불과하나, 본고의 논의를 통하여 한국한자음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부교수

## 2. 자료의 소개와 검토

이 장에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비롯한 국내외의 각종 자료들에 나타나는 신라국호 이표기의 종류, 출현 빈도 등을 간략하게 소개·정리함으로써 본론에서 논의할 이표기 자료들의 확보에 주력하고자 한다.

### 2.1. 『삼국사기』, 『삼국유사』

먼저 『삼국사기』에는 (1)~(3)의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5종의 이표기가 등장하며, 그 출현 빈도는 新羅(215회)>斯羅(2회)=斯盧(2회)>徐那伐(1회)=徐耶伐(1회)의 순으로 나타난다.<sup>1)</sup>

- (1) 國號徐那伐<삼국사기1·신라본기1·혁거세거서간>
- (2) 始祖創業已來, 國名未定, 或稱斯羅, 或稱斯盧, 或言新羅, …… 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義, 則其爲國號<삼국사기4·신라본기4·지증마립간>
- (3) 國號曰徐耶伐, 或云斯羅, 或云斯盧, 或云新羅<삼국사기34·잡지3·지리1>

다음으로 『삼국유사』에는 (4)~(6)의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6종의 이표기가 등장하며, 그 출현 빈도는 新羅(國)(90회)>雞林(國)(9회)>徐(羅)伐(4회)>斯羅(2회)>斯盧(1회)의 순으로 나타난다.

- (4) 國號徐羅伐, 又徐伐, 或斯(盧), 或雞林<삼국유사1·왕력·혁거세>
- (5) 定國號曰新羅, 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民云<삼국유사1·왕력·기림이질금>
- (6) 國號徐羅伐, 又徐伐 …… 或云斯羅, 又斯盧, …… 或云雞林國<삼국유사1·기이1·신라시조혁거세왕>

1) 이것은 송기중 외 2인편(1994)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자가 계산한 것인데(따라서 약간의 수치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新羅古記, 新羅城, 新羅樂' 등 국호 이외의 고유명사들이나, 동일 표기라도 지명으로 조사된 것들은(예: 雞林) 계산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삼국유사』의 경우도 이와 같다.

## 2.2. 금석문, 기타

현재까지 발견된 국내의 금석문 자료들에서는 (7)~(8)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종의 이표기만 등장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송기중 외 2인편(1994), 정재영(2001) 참조), 그 출현 빈도는 新羅(國)(27회)>斯羅(2회)의 순으로 나타난다.<sup>2)</sup> 이러한 자료상의 빈곤은 현재 남아 있는 금석문의 양적, 시대적인 한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 (7) 斯羅 喙 斯夫智王 乃智王 此二王教(=斯羅 喙部の 斯夫智王과 乃智王, 이 두 왕이 판결하여 명령하였다.)<영일냉수리신라비명(503?)>
- (8) 新羅六部煞斑牛謂□□事(=新羅六部에서는 얼룩소를 죽이어 (祭를 드리니) □□일이라고 말하였다.)<울진봉평신라비명(524)><sup>3)</sup>

이 외 후대의 문헌들에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尸羅, 新盧’의 두 예를 더 찾을 수 있다.

- (9) 檀君據朝鮮之域爲王, 故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穢與貊, 皆檀君之壽也<帝王韻紀下>
- (10) 新羅史…… 稱以斯盧, 居于金城. 盖斯盧·斯羅·新羅·新盧, 皆云新國者也<海東繹史續>

(9)의 기록에 등장하는 ‘尸羅’는 고려조의 일부 문헌들에서만 볼 수 있는 표기이고,<sup>4)</sup> (10)의 기록에 등장하는 ‘新盧’는 후술할 중국측 사료(예시 (11) 참조)와 일치하는 표기이다. 둘 다 수적으로 열세이며 후대의 기록이라는 문제점은 있으나, 여타의 표기예들과 音借의 방식이 흡사하다는 점

2) 송기중 외 2인편(1994)의 ‘금석문·고문서 어휘집성’ 편을 조사한 결과이다.

3) 두 비명의 판독과 해독, 연대 추정 등은 남풍현(2000)을 따랐다.

4) 현재까지 필자가 파악한 바 이 표기가 나타나는 다른 문헌으로는 均如의 『十句章圓通記』인데, “一本云 尸羅國世達寺沙門神琳釋……”<『한국불교전서』 4: 40>라고 한 구절 속에 등장하고 있다(김상현 1991:29f. 참조).

에서 우리의 이표기 자료에 포함시켜도 좋을 듯하다.

### 2.3. 국외 자료

한편, 중국과 일본의 각종 문헌들에 등장하는 신라국호의 이표기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의 자료들과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 (11) 新羅者…… 魏時曰新盧，宋時曰新羅，或曰斯羅<梁書4·本紀54·列傳48·諸夷·新羅>  
 (12) 新羅者…… 其後復歸故國，有留者，遂爲新羅，亦曰斯盧<北史94·列傳82·新羅>

첫째, 중국측 사서들에는 (11)~(12)에 소개한 바와 같이 4종의 이표기가 등장하는데, 그 출현 빈도는 新羅(157회)>斯羅(5회)>新盧(2회)>斯盧(1회)의 순으로 나타난다.<sup>5)</sup> 이 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이들과 음상이 매우 비슷한 '斯盧國<弁辰傳>，駟盧國<韓傳>'의 표기도 보이나, 이들을 신라국호의 이표기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 각각 弁辰과 馬韓에 대한 기록에 등장함으로써 현재로서는 신라국호의 이표기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 (13) 故其御船之波瀾，押騰新羅之國<古事記·仲哀段><sup>6)</sup>  
                     シラギノクニ  
 (14) 新良貴 …… 是於新良國卽爲國主，稻飲命者新羅國王之祖也<新撰姓氏錄>  
                     シラギ                    シラキノクニ                    シラキ의クニ  
 (15) 栲翁志羅紀乃三崎<出雲風土記>  
                     タクフスマシラギノミサキ

5) 역시 송기중 외 2인편(1994)의 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다.

6) (13)~(14)는 아유카이(鮎貝房之進)(1931/1972: 137)에서, 그리고 (15)는 시라토리(白鳥庫吉)(1906/1970: 278)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일본측 자료에 대해서는 양주동(1943/1954: 41) 또는 이종철(1995: 20)의 설명도 아울러 참조.

둘째, 일본측 문헌들에는 (13)~(15)에 소개한 바와 같이 ‘新羅, 新良(貴), 志羅紀’ 등 3종의 이표기가 등장하고 있으며(각각의 출현 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다), 이들은 모두 siraki(또는 siragi)로 음역되고 있다. 이들 표기에서의 ‘-貴, -紀’ 등은 ‘城 또는 國’을 뜻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이종철 1995: 20) 결국 신라국호의 이표기 자료로는 ‘新羅, 新良, 志羅’의 3종을 확보할 수 있고, 가타카나로 된 음역 표기를 통하여 그 음상이 [sira] 또는 이에 매우 가까운 것이었음도 알 수 있다.

### 3. 이표기 글자들의 동음관계와 그 의미

앞 장에서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신라국호의 이표기로 ‘徐那伐, 徐(羅)伐, 徐耶伐, 斯羅, 斯盧, 尸羅, 新羅, 雞林(國), 新盧, 新良, 志羅’ 등 11종의 표기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는 음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雞林(國)’을 제외한 나머지 10종의 이표기를 대상으로 음절별 글자들의 동음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국의 음계를 추적하고, 이를 통하여 고대 한국한자음의 층위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 3.1. ‘徐=斯=尸=志=新’의 동음관계

10종의 이표기들의 첫 음절에 사용된 글자들의 중고음·상고음의 음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음계의 제시 방법에 대해서는 권인한(2000ㄴ: 215) 각주 11)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 ①「徐」: MC. 遇三平魚邪/似魚 ⇒ /zi<sup>h</sup>平/  
AC. 魚邪平 ⇒ [Tzjag [Kdzjo [Cɾjaɾ [Aɪsrag [Lsdjag [Wzɪa
- ②「斯」: MC. 止開三平支心/息移 ⇒ /sier<sup>h</sup>平/  
AC. 支心平 ⇒ [Tsjeg [Ksjëg [Csjieɾ [Aɪsieg [Lsjig [Wsjie
- ③「尸」: MC. 止開三平脂書/式脂 ⇒ /siei<sup>h</sup>平/

- AC. 脂書平 ⇒ [Tɕjæd] [Kɕjæd] [Cɕstjier] [Aɕsier] [Lɦrjɪd] [Wɕjɛi]
- ④「志」: MC. 止開三去志章/職吏 ⇒ /tɕiɿ去/  
 AC. 之章去 ⇒ [Tɕtjæg] [Kɕtjæg] [Cɕtjæg] [Altæg] [Lɕtjæg] [Wɕtjɛ]
- ⑤「新」: MC. 臻開三平眞心/息鄰 ⇒ /sien平/  
 AC. 眞心平 ⇒ [Tɕsien] [Kɕsien] [Cɕsien] [Asien] [Lɕsien] [Wɕsien]

①~⑤의 글자들이 동음관계를 이룬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첫째, 성모의 문제는 邪母(①), 心母(②, ⑤), 書母(③), 章母(④)의 동음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점이 될 것이며, 둘째, 운모의 문제는 遇攝(①), 止攝(②~④), 臻攝(⑤)의 동음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점이 될 것이다.

### 3.1.1. 성모의 문제

성모에 있어서의 心(②, ⑤)=邪(①)=書(④)의 동음관계는 고대국어 치음 계열의 전반적인 互用 樣相과 흡사하다. 즉, 고대국어의 고유명사 이표기 자료 전체에서 心⇔邪(4예), 心⇔書(4예)의 互用例를 보여주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권인한 1999: 95의 <표2> 참조).<sup>7)</sup>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동음관계가 중국의 중고음, 상고음의 성모체계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상고음에 대한 도도(藤堂明保)의 추정음(=[A])을 따른다면 이 동음관계를 상고음의 반영 결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위에서 보듯이 도도의 추정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므로 단정지어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위와 비슷한 동음관계를 보여주는 또다른 중국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유력한 후보로 당오대 서북방음의 자료를 지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오릉편(邵榮芬)(1963)의 논의에 의하면, 돈황의 속문학 자료에서 바로 心⇔書(12예), 心⇔邪(5예)의 代用例<sup>8)</sup>를

7) 이러한 동음관계는 중세 한국한자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세 성모 모두 /s/으로 반영되고 있음이 그 근거다. 권인한(1997: 313)의 대응표 참조.

8) 사오릉편(1963: 199)에 소개된 예들은 다음과 같다. 당오대 서북방음에 대해서는 뒤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대로 당오대 서북방음은 한자음의 종성 /ㄹ/의 정착과 관련하여 한국한자음의 성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음계이므로(이기문 1998: 88), 신라국호 이표기들의 첫 음절에서의 ‘邪=心=書’의 동음관계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음계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설명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sup>9)</sup>

그러나 ④가 보여주는 章母와의 동음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한국의 자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듯하다. 문제의 ‘志’字가 일본 자료에만 등장하고 있고, 이 글자의 일본한자음이 si(シ)라는 사실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를 찾기 어려울 듯하다.

### 3.1.2. 운모의 문제

먼저 遇攝字(①)와 止攝字(②~④)의 동음관계는 중고음이나 상고음의 어느 음계로도 만족할 설명을 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들의 중세 한국한자음도 각각 [L서, L스, L시, R지]이므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한자음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동음관계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동음관계와 완전 일치하는 호용예들을 당오대 서북방음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시 사오릉편(1963)의 논의에 따르면, 돈황의 속문학 자료에는 止攝 내부의 支⇔脂(44예), 支⇔之(75예), 脂⇔之(20예) 호용예뿐만 아니라, 止攝과 遇攝 사이의 支⇔魚(14예), 之⇔魚(85예) 호용예도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0)</sup> 더욱이 이들은 이

장페이(羅常培)(1933), 다카타(高田時雄)(1988)의 논의도 참조.

1. 心, 書代用例 : 小(心)⇔少(書)<11예>, 輸(書)⇔須(心)<1예>
2. 心, 邪代用例 : 瀉(心)⇔謝(邪)<1예>, 賜(心)⇔似(邪)<1예>, 席(邪)⇔悉(心)<2예>, 旋(邪)⇔選(心)<1예>

※뤼쵡페이(1933)은 국내에서 구해보기 어려운 자료에 속한다. 필자는 연전에 김주필 교수의 주선으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김 교수님께 사의를 표한다.

- 9) 따라서 권인한(1999)에서 이러한 동음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위진남북조음에 집착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필요로 한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자료인 『經典釋文』에는 心⇔書의 예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당오대 서북방음의 자료가 더 적절한 비교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표기 자료(=異文, 別字)에만 그치지 않고, 漢·藏 대역 자료에서도 실제 [-i](또는 [-u])의 音譯에 사용되고 있으므로<sup>11)</sup> 이들의 동음관계는 자못 믿음직한 것이 된다. 따라서 문제의 遇攝과 止攝 사이의 동음관계에 대해서도 당오대 서북방음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설명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판단된다.<sup>12)</sup>

다음으로 遇·止攝字(①~④)와 臻攝字(⑤)의 동음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이들 역시 중국의 음계나 한국한자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동음관계인데,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필자로서는 문제의 동음관계가 국어의 유음화 현상의 환경과 동일한 위치에서 관찰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즉, '新羅, 新盧, 新良' 등 「新」字 다음에 모두 來母字가 위치한다는 점에서 고대국어 단계에 이미 유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sirra] 정도로 발음되었던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斯羅, 斯盧' 등의 표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신라 국호의 음상 \*sira에 매우 가까운 것이 되므로 종성 위치에서의 /n/=∅ [zero]라는 특이 동음관계에 대한 설명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사오룽편(1963: 202-205)에 소개된 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支⇔脂: 施(支)⇔尸(脂)<1예>, 斯(支)⇔私(脂)<1예> 등 44예
2. 支⇔之: 知(支)⇔之(之)<12예>, 斯(支)⇔思(之)<5예> 등 75예
3. 脂⇔之: 脂(脂)⇔痴(之)<1예>, 茲(之)⇔資(脂)<1예> 등 20예
4. 支⇔魚: 兒(支)⇔如(魚)<3예>, 諸(魚)⇔支(支)<1예> 등 14예
5. 之⇔魚: 而(之)⇔如(魚)<26예>, 之(之)⇔諸(魚)<3예> 등 85예

11) 이와 동일한 지적은 뤼창페이(1933: 42-46), 다카타(1988: 115-119)에도 있다. 이것은 「事, 史, 次」 등이 일본한자음에서 'si, si, zi'로 읽히는 것과 우리의 이두·향찰·구결 자료에서 「賜」(ㄹ)가 '-시-'에 대응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음성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f. 이승재(2000: 217).

12) 이와 비슷한 동음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차자표기 자료들에서 폭넓게 찾을 수 있다. 고유명사 표기에서의 「次」=「處」(朕觸[或作異次, 或云伊處 ……]<유사3·홍법3·원종홍법>), 향가에서의 「呂」=「里」, 등이 여기에 속하는 예들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는 新良縣, 本百濟沙尸良縣<사기36·잡지5·지리3>을 들 수 있겠다. 여기에서 보면 來母字 ‘良’과 결합한 ‘新’이 \*sVr 정도로 읽혔음을 ‘沙尸’의 표기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sup>13)</sup> 고대의 이표기 자료 중에서 신라국호 이표기들 외에 운미음 /-n/ 뒤에 來母가 직접 결합되는 예로는 이것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한 예에 그치기는 하나 이 환경에 드는 예에서 유음화에 필적할 만한 표기상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예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동음관계는 국어 유음화 현상의 연원을 매우 이른 시기로까지 소급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3.2. ‘那=羅=耶=盧=良’의 동음관계

한편 신라국호 이표기들에서의 둘째 음절에 사용된 글자들의 중고음·상고음의 음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⑥「那」: MC. 果開一平歌泥/諾何 ⇒ /na平/14)  
 AC. 歌泥平 ⇒ [T]nâ [K]hâr [C]na [A]nar [L]nar [W]nai
- ⑦「羅」: MC. 果開一平歌來/魯何 ⇒ /la平/  
 AC. 歌來平 ⇒ [T]lâ [K]lâ [C]la [A]lar [L]lar [W]lai
- ⑧「耶」: MC. 假開三平麻以/以遮 ⇒ /ia平/  
 AC. 魚餘平 ⇒ [T]— [K]žjâ [C]ɣraɾ [A]driäg [L]rjiag [W]ſia
- ⑨「盧」: MC. 遇合一平模來/落胡 ⇒ /lu平/

13) \*sVr 정도로 음가를 추정하는 것은 「沙」의 중고음 음위가 “假開二平麻生”이어서 「新」의 음상과 모음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고려한 것이다. 신라의 자료들에서 「新」字가 대개 \*sin의 음으로 읽히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신라와 백제 사이의 한자음의 차이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의 구명 과제로 남겨둔다. 한편, 음차자 ‘尸’의 음가를 [r]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김혜영(1996), 김영진(2000) 등의 논의를 참조.

14) 又音 上聲, 去聲.

AC. 魚來平 ⇒ [T]âg [K]lo [C]la r [A]luag [L]lag [W]la

⑩「良」: MC. 宕開三平陽來/呂張 ⇒ /liɑŋ平/

AC. 陽來平 ⇒ [T]liang [K]liɑng [C]liang [A]liɑŋ [L]liɑŋ [W]liɑŋ

역시 ⑥~⑩의 글자들이 동음관계를 이룬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첫째, 성모의 문제는 泥母(⑥), 來母(⑦, ⑨, ⑩), 以母(⑧)의 동음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점이 될 것이며, 둘째, 운모의 문제는 果攝(⑥, ⑦), 假攝(⑧), 遇攝(⑨), 宕攝(⑩)의 동음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점이 될 것이다.

### 3.2.1. 성모의 문제

성모의 문제는 泥=來, 來=以의 두 가지의 동음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박창원(1987), 도수희(1994) 등에서 ‘한아비>할아비’와 흡사한 n(ń)>r/\_\_\_\_V(도수희 1994: 247)의 음운현상이 고대국어 단계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설명한 바 있고, 후자에 대해서도 권인한(1996)에서 以母의 상고음을 [ʌ]로 본 왕리(王力)(1985)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 동음관계를 상고음 체계의 반영으로 설명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 3.2.2. 운모의 문제

운모의 문제에 대해서도 권인한(1996)에서 ⑥~⑧, ⑩의 글자들이 모두 나타나는 가락국호의 이표기들을 대상으로 그 동음관계가 상고음 체계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본 논의에서 크게 보탬 것은 없다. 다만, 본고에서 새로이 추가된 글자는 ⑨의 「廬」字인데, 이 글자의 상고음도 위에서 보듯이 ⑧과 같은 魚部에 속하여 그 핵모음을 [a]로 재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글에서 내린 결론을 재확인하는 예가 됨을 덧붙이고 싶다.

### 3.3. 고대 한국한자음의 기층음

앞 두 절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신라국호의 첫 음절에 사용된 글자들의 동음관계는 당오대 서북방음의 영향으로, 둘째 음절에 사용된 글자들의 동음관계는 상고음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논의 결과와 필자의 최근 논의들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한 사실들을 종합함으로써 고대 한국한자음의 형성 문제에 대하여 현재까지 필자가 이해한 바를 정리하고자 한다.

필자는 최근 몇 편의 논고를 통하여 고대 한국한자음의 체계를 잠정적 이나마 상고음 계통의 舊音과 중고음 계통의 新音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파악한 권인한(1997<sup>1)</sup>)의 결론에 대한 반성을 표명한 바 있다.

첫째, 권인한(1999: 80, 각주10)에서는 “삼국이 중국과 맺은 외교사에 비추어 보아서 적어도 위진남북조 시대의 음계에 기초한 층위”의 존재를 시사하였으며, 실제로 같은 논문의 3장 부분에서 위진남북조음의 몇 가지 특징을 고유명사 이표기들의 대응관계와 비교해 보인 바 있다.

둘째, 권인한(2000<sup>1)</sup>)에서는 이두자 「投」, 「等」, 「味」의 독법과 한자음의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자음 층위 문제의 일단을 언급하였다. 즉 「投」와 「等」의 한자음은 중고음 체계에 충실하게 [\*두]와 [\*든]으로 재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현재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두의 독법과도 일치함을 지적한 반면,<sup>15)</sup> 「味」에 대해서는 漢代的 『禮記鄭注』에서의 「味亡曷反」의 협주음에 근거하여 그 한자음의 하나로 [\*말]을 재구할 수 있고,

15) 「投」에 대해서는 동운자 「兜」의 속음 [도]가 상고음에 근사함을 근거로 그 음을 [\*도]로까지 재구할 수 있음도 말한 바 있다. 지금에 와서는 속음 [도]의 연원이 상고음보다는 위진남북조음에 소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두]~[도]의 정·속음 관계는 우리의 고유명사 이표기들 중의 阿道基羅[一作我道, 又阿頭]<유사3·홍법3·야도기라>, 伯固[固 一作句]<사기16·고구려본기4·신대왕> 등에서 볼 수 있는 流攝字(「頭」, 「句」)·效攝字(「道」), 遇攝字(「固」) 사이의 동음관계와 일치하며, 이러한 동음관계는 위진남북조음의 한 특징이 되기 때문이다. 사카이(坂井建一)(1975: 355, 379)의 논의 참조.

이에 따라 이두의 독법도 ‘말[言]로 고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권인한 2000ㄴ).

이상과 본고의 논의를 종합하면, 고대 한국한자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따라서 고대 한국한자음의 기층음으로 보아야 할 중국음계로는 일단 ①상고~한대음, ②위진남북조음, ③중고음, ④당오대 서북방음의 네 음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그런데 ③, ④의 음계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 하면, 이전의 글에서 필자가 중고음 층위의 특징의 하나로 제시하였던 「眞」=「貞」, 「全」=「誠」, 「舜」=「勝」(권인한 1997 ㄱ: 305f.)의 동음관계가 당오대 서북방음의 자료와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sup>17)</sup> ④의 음계는 중고음뿐만 아니라 한국한자음의 모태음으로 발전한 長安音과도(권인한 1997 ㄱ: 288-294) 상당 부분 공통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8)</sup> 요컨대 현재로서는 고대 한국한자음의 기층음으로 ①상고~한대음, ②위진남북조음, ③중고~당오대 서북방음(=장안음)의 세 음계를 지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16) 이는 유창균(1991: 56-95)에서 삼국의 한자음의 특징을 대략 “한음(초기)→위진남북조음(중기)→당음(후기)” 정도로 요약한 논의 결과와 상당히 비슷하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漢代音을 상고음에 편입시키기도 하므로(이재돈 1993 등) ‘상고~한대음’을 한 시기로 묶은 것임을 밝혀둔다.

17) 역시 사오룡편(1963: 210)에는 다음의 예들이 소개되어 있다.

1. 蒸⇔眞 : 勝(蒸)⇔身(眞) 1예, 陵(蒸)⇔隣(眞) 6예, 臣(眞)⇔承(蒸) 1예 등
2. 庚⇔眞 : 生(庚)⇔申(眞) 1예
3. 梗⇔隱 : 影(梗)⇔隱(隱) 1예

18) 다카타(1988:186-191)의 논의에 의하면, 돈황을 중심으로 한 河西方言은 10세기 초(A.D. 907) 唐이 멸망하기 이전까지 당시의 표준음인 長安音과의 거리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한다. 본 논의의 주요한 논거가 된 돈황 속문학 자료도 8세기 중엽~10세기 중엽에 걸친 자료들이므로(사오룡편 1963:195) 여기서 말하는 당오대 서북방음은 사실상 장안음과 동일한 음계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4. 결론

신라국호는 가락국호와 함께 가장 많은 이표기를 보이는 고유명사의 하나로서 고대 한국한자음의 연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춘 자료가 된다. 이 점에 주목하여 신라국호 이표기들의 음절별 글자들의 동음관계를 구명함으로써 고대 한국한자음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이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본론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함으로써 본고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국내외의 각종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신라국호의 이표기는 ‘徐那伐, 徐(羅)伐, 徐耶伐, 斯羅, 斯盧, 尸羅, 新羅, 雞林(國), 新盧, 新良, 志羅’ 등 11종의 표기예를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음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雞林(國)’의 표기를 제외한 나머지 10종의 이표기를 대상으로 음절별 글자들의 동음관계를 추적한 결과, 첫 음절의 글자들에 있어서는 성모 및 운모의 면에서 唐五代 西北方音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둘째 음절의 글자들에 있어서는 성모 및 운모의 면에서 상고음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新羅, 新盧, 新良’의 예들을 통해서는 국어의 유음화 현상의 연원이 매우 이른 시기로까지 소급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위의 논의 결과와 필자의 최근 논의들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해 본 결과, 고대 한국한자음의 기층음으로는 ①상고~한대음, ②위진남북조음, ③중고~당오대 서북방음(=장안음)의 세 음계를 지목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 결과가 고대 한국한자음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에 어느 정도로 나아간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가늠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고대 한국한자음의 기층음 문제에 대한 중간 결산이나마 할 수 있었다는 데에 만족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 글의 곳곳에서 숙제로 남겨둔 과제들에 대한 계속적인 고찰과 보완을 통하여 고대 한국한자음의 체계 구명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스스로 다짐해 본다.

## 참고 문헌

- 강신항(1996), 한자음을 통해서 본 국어음운사연구 문제, 『국어학』 27: 203-214.
- 고영근(1998), 석독구결의 국어사적 가치, 『구결연구』 3: 1-28.
- 권인한(1996), 고대국어 한자음 연구의 가능성 모색, 『울산어문논집』 11,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143-164.
- 권인한(1997ㄱ), 한자음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283-344.
- 권인한(1997ㄴ), 고려시대 한국한자음에 대한 일고찰—《삼국유사》 소재 찬시의 압운 분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2: 289-316.
- 권인한(1999), 고대국어의 처음계열에 대한 연구, 『애산학보』 23, 애산학회: 73-107.
- 권인한(2000ㄱ), 이두의 독법과 한자음의 관계, 『제22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45-62.
- 권인한(2000ㄴ), 이두자 「味」의 독법과 한자음의 관계,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도서출판 월인: 207-224.
- 김상현(1991),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 김영진(2000), 국어 미파화의 통시적 고찰,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 김완진(1996), 『음운과 문자』, 신구문화사.
- 김완진(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출판부.
- 김현정(1996), 李方桂 상고음 체계에 근거한 상고음운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중어학 전공).
- 김혜영(1996), 국어 유음의 통시적 연구, 경남대 박사학위논문.
- 남광우편(1995), 『고금한한자전』, 인하대출판부.
- 남풍현(1995), 국어사 사료로서의 삼국사기에 대한 검토,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5-76.
- 남풍현(2000), 『이두 연구』, 태학사.
- 남풍현(2001), 고대국어의 단모음화에 대하여, 『제24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39-45.
- 누모토(沼本克明)(1986), 『日本漢字音の歴史』, 東京堂出版.
- 다카타(高田時雄)(1988), 『敦煌資料による中國語史の研究』, 創文社.
- 도도(藤堂明保)(1967), 上古漢語の音韻, 『言語(中國文化叢書 1)』, 大修館書店:

33-89.

도수희(1994), 고대국어의 음운변화, 『백제어 연구(Ⅲ)』, 백제문화개발연구원: 243-251.

동통허(董同龢)(1944), 『上古音韻表稿』,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單刊甲種之二十一.

딩방신(Ting Pang-hsin)(1975), *Chinese Phonology of the WEI-CHIN period: Reconstruction of the finals as reflected in poetry*, Institute of History & Philology Academia Sinica special publications No. 65.

뤄창페이(羅常培)(1933), 『唐五代西北方音』,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單刊甲種之十二.

리진화·저우창지편(李珍華·周長楫編)(1993), 『漢字古今音表』, 中華書局.

박창원(1987), 가라어와 관련된 몇 문제, 『가라문화』 5, 경남대 가라문화연구소: 55-81.

사오룽편(邵榮芬)(1963), 敦煌俗文學中的別字異文和唐五代西北方音, 『中國語文』 124(1963年第3期): 193-217.

사카이(坂井健一)(1975), 『魏晉南北朝字音研究』, 汲古書院.

송기중 외 2인편(1994), 『고대국어어휘집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시라토리(白鳥庫吉)(1906/1970), 新羅の國號に就いて, 『白鳥庫吉全集第三卷(朝鮮史研究)』, 岩波書店: 277-286.

아유카이(鮎貝房之進)(1931/1972), 日本の韓,新羅,任那,百濟,高麗,漢,秦等の古訓に就きて, 『雜攷·新羅王號攷·朝鮮國名攷』, 國書刊行會: 136-149.

양주동(1943/1954), 『고가연구』, 박문출판사.

왕리(王力)(1985),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권택룡역(1997), 중국어음운사, 도서출판 대일).

유창균(1980, 1983), 『한국 고대한자음의 연구 I, II』, 계명대출판부.

유창균(1991), 『삼국시대의 한자음』, 민음사.

이기문(1991),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이돈주(1990), 향가 용자 중의 '賜'자에 대하여. 『국어학』 20: 72-89.

이돈주(1995), 『한자음운학의 이해』, 탐출판사.

이민수역(1994),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이병도역(1983/1996), 『삼국사기(상·하)』, 을유문화사.

이승재(1998), 고려중기 구결자료의 경어법 체계—3등급 체계와 2등급 체계의 차

- 이를 중심으로,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843-878.
- 이승재(2000), 존경법 선어말어미 ‘-ᄃᆞ/ᄃ[시]-’의 형태음소론적 연구—구결자료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0: 215-237.
- 이종철(1995), 『일본지명에 반영된 한계어원 재고』, 국학자료원.
- 이재돈(1993), 『중국어 음운학』, 서광학술자료사.
- 저우파가오편(周法高主編)(1973), 『漢字古今音彙』, 中文大學出版社.
- 정재영(2001), 금석문과 고문서에 나타난 지명 자료에 대하여—신라와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미발표 원고본.
- 최남희(1999), 『고대국어 표기 한자음 연구』, 박이정.
- 칼그렌(Karlgren, K.B.J.)(1915~1926), *É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Leyde Stockholm, and Göteborg(趙元任·李方桂譯(1940/1975), 『中國音韻學研究』, 臺灣商務印書館).
- 히라야마(平山久雄)(1967), 中古漢語の音韻, 『言語(中國文化叢書 1)』, 大修館書店: 112-166.